

# 디지털 시장에 번진 경제적 민족주의

규제에서 진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한승혜 연구위원 (shhan@kinternet.org)

권재한 책임연구원 (jaehan@kinternet.org)

## 요약

- ▶ 트럼프 당선으로 촉발된 관세 전쟁은 물리적 상품 교역을 넘어 디지털 경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과 EU는 자국 빅테크 보호와 미국 기업 견제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고 있음
- ▶ 세계시장에서 자국의 국가 경제를 보호하려는 경제적 민족주의가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도 강화되면서, 데이터 주권, 기술 보호, 플랫폼 규제 등이 주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음
  - 미국은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EU는 규제 중심에서 산업 육성으로 정책을 선회했으며, 중국은 해외 기업 규제와 자국 기업 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 한국은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기반이 되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프레임에 갇혀 있어 글로벌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와 통상마찰 위험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함
-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현행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함

## 국제 정세 변화 속 의미를 잃어가는 한국의 규제 논의

- ▶ 트럼프 당선으로 촉발된 관세 전쟁은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주고 있으며, 물리적인 상품 교역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영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유럽연합 역시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중국과 유럽연합도 각각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통상 대응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조선일보, 2025.2.7.)
  -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디지털서비스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함(연합뉴스, 2025.2.22.)
  - \*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에 대응 시 ▲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의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겠다고 각서에 명시하였으며, 관계 부처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
- ▶ 이에 따라 각국은 디지털 정책 변화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 기업의 약진이 가시화되자 해외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통해 패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중국은 토종기업 성장에 대한 집중적 지원, 대만은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최소화, EU는 해외 빅테크 견제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일본은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결합한 유연한 규제 방식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주력하는 등 각국이 자국 플랫폼 보호와 성장을 도모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함(정주연, 2025)
- ▶ 글로벌 통상전쟁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되고 각국이 자국 빅테크 보호에 나서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한국은 AI 산업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그 토대가 되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 접근에 머물러 있음

## 경제적 민족주의 관점에서의 주요국 디지털 경제 전략 변화

- ▶ 세계시장에서 각국이 자국 경제의 보호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은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영국의 브렉시트, 트럼프 정부의 국수주의적 태도 등은 최근의 대표적인 경제적 민족주의 사례로 해석됨(Jacobides, 2020)
  - \* 경제적 민족주의는 경제 활동이 국가 건설의 목표와 국가의 이익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사상적 개념으로(Gilpin, 2001), 세계시장에서 자국 경제를 창출하고 강화하며 보호하기 위한 관행들에서 확인할 수 있음(Pryke, 2012)
- ▶ 디지털 경제가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데이터 주권, 기술 보호, 플랫폼 규제 등이 주요국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최근 세계 경제의 주요 3지대라 할 수 있는 미국, EU, 중국의 전략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2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매출이 약 60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였고(김준연, 2021), 맥킨지의 2023년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기술 도입과 디지털 기업 성장을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음(McKinsey&Company, 2023)

## <미국: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 전략>

- ▶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기업에 미국 투자를 압박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이 강점을 가진 플랫폼·인공지능(AI)과 관련해선 상대국에 규제의 벽을 허물고 자유무역을 보장하라 요구(조선일보, 2025.2.24.)
  -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AI 규제를 폐기하였고(ZDNet, 2025.1.21.), AI 및 첨단 기술 관련 수출통제와 미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함(TIME, 2025.2.20.)
- ▶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EU와 중국 등의 미국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통상 압박과 보복 관세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하며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음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EU와 한국 등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보복 관세' 등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동아일보, 2025.2.8.)
  - 2025년 2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을 방문해 EU의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들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강력하게 비판(연합뉴스, 2025.2.20.)

## <EU: 디지털 산업 육성 강화와 통상 압박 대응>

- ▶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EU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역내 디지털 산업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유럽 디지털 산업의 부활을 도모함(한아름, 2024)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재선임으로 출범한 2기 집행위원회는 규제 자체에 초점을 맞춘 1기와 달리 규제 완화와 투자 보호 등 조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내세움(장영욱 외, 2024)
    - \*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 전략 : 단일시장 확대와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이중적 접근 방식을 추진(송창현, 2025)
- ▶ 반면 해외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더욱 정교화하는 추세로, 기존의 규제법(DMA 등) 외에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수단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 접근이 시도됨
  -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통상 유럽 대응 조치(Anti-Coercion Instrument·ACI)\*가 검토되고 있음(조선일보, 2025.2.7.)

\* ACI는 외국이 EU의 특정 회원국에 강압적 무역조치를 취했을 때 즉각적인 맞대응 조치(해외 기업 서비스 중단, 외국 자본 투자 금지 등)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EU가 미국 통상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됨(파이낸셜뉴스, 2025.2.6.)

## <중국: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트랙 전략>

- ▶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자국 기업 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며, 특히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국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 지원 확대와 해외 기업에 대한 견제 강화를 동시에 진행함
  -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중국은 구글, 엔비디아, 인텔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실시(동아일보, 2025.2.5.)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거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은 앞으로 나아가고 민영기업이 뒤로 물러난다) 기조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민영 기업가들을 긴급 소집(데일리안, 2025.2.23.), 이는 중국이 기존의 강력한 플랫폼 규제에서 벗어나 민영 기업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로 해석됨
- ▶ 중국은 2035년까지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자급자족 달성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오종혁, 2023)

## 한국 플랫폼 규제 전략의 부재

- ▶ 한국이 지금껏 추진해 온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정세 변화 속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냄
  - (실효성 문제)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점유율과 이용자 수 기준의 규제\*가 실제 적용에서는 해외 플랫폼 규율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임
    -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는 법안의 규율대상은 점유율과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분류됨(한국경제, 2025.2.17.)
  - (통상마찰 위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 규정하고 상호관세의 고려 대상에 포함하면서, 기존 규제 방향을 고수할 경우 통상 문제 발생 우려(국민일보, 2025.2.18)
  - (시장 잠식 우려) 해외 플랫폼 규율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국내 플랫폼의 성장 동력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음(정주연, 2024)
- ▶ 다른 국가들이 자국 플랫폼 보호와 육성을 병행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AI 경쟁력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기반이 되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일관성있는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EU·중국이 자국 플랫폼 보호와 육성 정책을 통해 디지털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규제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음

- 특히 글로벌 AI 강국 모두 강력한 자국 플랫폼 기업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AI 기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플랫폼과 AI의 공생관계를 간과한 채 분절된 정책을 추진
-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 텐센트 등 자국 플랫폼 기업이 AI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Caixin Global, 2025.1.6.), 한국은 AI 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이 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략이 부재
- AI 산업과 디지털 플랫폼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시급

##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제언

- ▶ 각국이 보호주의 전략을 취하면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 블록화가 가속되는 시점에 한국에게도 단순한 공정성 프레임 넘어 국가 경제 주권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주요국이 자국 경제 보호를 강화하면 과거 화웨이 장비 도입 문제나 사드 배치 이후의 경제 보복 사례와 같이 한국이 글로벌 패권 갈등 속에서 국익과 무관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음
  -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국내 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통상 관계와 국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 ▶ 경제적 민족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규제 형평성 확보와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규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 나아가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플랫폼 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 주권 차원에서 핵심 디지털 인프라의 자주성 강화, 디지털 양성 등 장기적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특히 AI와 플랫폼을 분절된 산업으로 접근하는 현재의 정책 기초를 탈피하여, 디지털 생태계의 유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적 전략 수립이 시급함

## 참고문헌

- 국민일보(2025.2.18.). 美 심기 건들라... '플랫폼법' 입법 진퇴양난.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9783452&code=11151100>
- 김준연(2021). 글로벌 플랫폼경제의 부상: 혁신론과 독점론을 넘어서. 월간SW중심사회. 2021년 12월호, 4-21.
- 데일리안(2025.2.23.) 시진핑이 민영 기업가를 긴급 소집한 속사정.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64815/>

- 동아일보(2025.2.5.). “中, 구글·엔비디아 이어 인텔도 조사 검토…美관세에 반격”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205/130972036/1>
- 동아일보(2025.2.8.). 美 통상정책 수장 “韓-EU 빅테크 규제 용납못해”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208/130991586/2>
- 송창현(2025). EU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의 혁신정책 추진 방향 및 시사점 :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KISTEP 브리프, No.169.
- 연합뉴스(2025.2.14.). 비관세장벽 겨누는 美 상호관세, 플랫폼법·무역흑자 문제삼을듯.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4016000071>
- 연합뉴스(2025.2.20.). 트럼프 등에 얽은 실리콘밸리, EU 규제에 반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126200009>
- 연합뉴스(2025.2.22.). 트럼프, 외국 디지털 규제 조사·관세 대응 지시…韓도 영향권.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2024600071?input=1195m>
- 오종혁(2023). ‘디지털 중국’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6 No.8.
- 장영욱, 오태현, 임유진, & 김초롱. (2024). 2024~ 29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7 No.31.
- 정주연(2024). 강력한 플랫폼 규제, 오히려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조하는 것이라면?. 이슈페이퍼 2024-05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정주연(2025).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 이슈페이퍼2025-01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조선일보(2025.2.7.) 트럼프 관세에 반격… "EU, 美 빅테크에 바주카포 장전.  
<https://www.chosun.com/national/2025/02/07/56DGDZOKERDRRMJNJ644Y7V2WE/>
- 조선일보(2025.2.24.) 美가 약한 제조업엔 '보호무역' 美가 강한 IT엔 '자유무역'.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2/24/VVX7J5OBABFSRAT242CZ5K2754/](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2/24/VVX7J5OBABFSRAT242CZ5K2754/)
- 파이낸셜뉴스(2025.2.6.). EU, 트럼프 관세 대비해 빅테크 ‘바주카’ 준비...서비스로 무역전쟁 확대.  
<https://www.fnnews.com/news/202502060149208917>
- 한국경제(2025.2.17.). [단독]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686241>
- 한아름 (2024). 폰 데어 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심화되는 美·中 경쟁 속 생존 전략. KITA통상리포트, Vol.13.
- BBC News 코리아(2025.2.7.). AI 챗봇 딥시크부터 전기차까지...중국은 모두를 앞서고 있나?.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gyrk30lyyo>
- ZDNet(2025.1.21.). 트럼프, 바이든 AI 행정명령도 폐기...규제 대폭 완화.  
<https://zdnet.co.kr/view/?no=20250121150901>
- Caixin Global(2025.1.6.). Cover Story: Chinese AI Startups Make Gains in Challenge to U.S.-based OpenAI.

<https://www.caixinglobal.com/2025-01-06/cover-story-chinese-ai-startups-make-gains-in-challenge-to-us-based-openai-102275720.html>

- Gilpin, R. (2001) *Global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cobides, M. G.(2020). Regulating Big Tech in Europe: why, so what, and how understanding their business models and ecosystems can make a difference.*Available at SSRN 3765324*.
- McKinsey&Company(2025.2.20.). Korea's next S-curve: A new economic growth model for 2040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locations/asia/korea/our%20insights/koreas%20next%20s%20curve%20a%20new%20economic%20growth%20model%20for%202040/koreas-next-s-curve-a-new-economic-growth-model-for-2040-ko.pdf>
- TIME(2025.2.20.). As Trump Reshapes AI Policy, Here's How He Could Protect America's AI Advantage.  
<https://time.com/7259911/trump-cuts-ai-policy-protect-americas-advantage/>
- Pryke, S. (2012). Economic nationalism: Theory, history and prospects.*Global Policy*,3(3), 281-291.